

| | | | |
|---------------|--|-----|--------------------------|
| 배포일시 | 2022. 9. 28.(수) | | |
| 담당 부서 <총괄> | 주택정책관실 | 책임자 | 과 장 정진훈(044-201-3337) |
|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사무관 최준녕(3339), 장지애(3347) |
| 보도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8.(수) 16:00 이후 보도 가능 | | |

원희룡 장관, 전세피해 고통 해소를 위한 첫 발 내딛다

- 서울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상주 -
- 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9개 기관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28.(수)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 * (공동선언 기관) 국토교통부(원희룡 장관), 경찰청(윤희근 청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이병훈 부사장), 대한법무사협회(이남철 협회장), 대한법률구조공단(김진수 이사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임명천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권성희 부회장), 서민주택금융재단(김수희 이사장), 우리은행(심기우 부행장)
- 원희룡 장관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찾은 실제 전세 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듣고,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며,
- “그동안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관련 >

-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및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 대표번호 : 전세구조전화 1533-8119(Rent 119), 02-6917-8119(센터 상담문의)
 ▶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2층, 화곡역 2번출구 60m거리)
 ▶ 홈페이지 : <http://www.khug.or.kr/>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 MOU 관련 >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22.7~'23.1)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 이 같은 협력을 통해 피해지원 뿐만 아니라 가해자 단속·처벌을 강화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 고 하며,
 -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여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 이라면서,
 -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 | | |
|-------------------|---------------------|-----|------------------------|
| 담당 부서 <총괄>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책임자 | 과 장 정진훈 (044-201-3337) |
| | | 담당자 | 사무관 최준녕 (044-201-3339) |
| | | | 주무관 장지애 (044-201-3347) |
| <특별단속>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 책임자 | 단 장 김성호 (044-201-3434) |
| | | 담당자 | 사무관 김동환 (044-201-3590) |
| <특별단속>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 책임자 | 총 경 김종민 (02-3150-2037) |
| | | 담당자 | 경 정 김현수 (02-3150-2468) |
|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구제반 | 책임자 | 반 장 김성탁 (051-955-5840) |
| | | 담당자 | 팀 장 강현정 (02-6917-8100) |

<지원센터 개요>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서울상공회의소빌딩 2층
- 지하철5호선 “화곡역” 2번출구 60m

□ 안내전화

- 대표번호 : 1533-8119(Rent 119)
- 기타 센터안내 : 02-6917-8119

□ 운영시간

- 상담가능시간 : 10:00~17:00(중식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 대표전화(1533-8119/02-6917-8119)는 직접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①센터위치 및 방문 ②창구이용 및 예약안내 ③지원프로그램 내용 안내만 가능



<지원센터 이용방법>

□ 법률상담

- 온라인 예약 :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접속(<http://www.khug.or.kr>) ⇒ ② 상단메뉴 『고객지원센터』 선택 ⇒ ③ 하단 『전세피해지원센터』 선택 ⇒ ④ 『예약하기』 메뉴 선택/조회·확인

- 1) 상담유형(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2) 상담일자, 3) 상담시간, 4) 상담방식 선택 후, 5) 상담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예약자 상담시간 : 신청인별 20분
- 상담방식 : 직접방문 또는 전화(고객 예약신청시간에 상담인력 유선상담 실시)

- 비예약 방문고객 : 공사직원 및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무사 상담

- 경우에 따라 대기시간 소요, 유선상담 대체, 상담시간 제한 등 가능

□ 임시주택 / 전세피해 접수·확인

- 센터 창구방문 또는 창구별 담당자 사전문의(02-6917-8119)후 이용
- 구비 서식 및 피해요건 등 세부사항 안내 예정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부동산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통칙

1. 이 업무협약(이하 “협약” 이라함)은 부동산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과 주거약자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협약의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양 기관은 기관별 인력·예산·업무를 존중하고 상호 가용자원 내에서 협력한다.

제2조

협력내용

본 협약에 따른 양 기관의 협력내용은 다음의 중점 분야와 함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 시책을 포함한다.

1. 양 기관은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
2. 양 기관은 전세사기를 포함한 불법중개, 부정계약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3. 양 기관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3조 협력방식

1. 양 기관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며, 「전세사기 특별단속」 이후에도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유지한다.
 - 가. 양 기관은 조사 및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상대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제공한다.
 - 나. 양 기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상대기관에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호협의·분석 후 지체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며, 조치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한다.
 - 다. 양 기관은 조사 및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의 추적·환수 등 후속조치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2. 국토부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과 전세피해 지원을 위하여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분기별로 제공한다.
3. 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및 상시 공조 등 부동산 관련 범죄 조사 및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파견한다.
4. 양 기관은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한다.
5. 기타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4조 협약

1. 양 기관은 협약내용을 상호 협력과 신뢰의 정신으로 준수한다.
2. 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5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협약에 의하여 취득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효력

1.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그 효력이 지속된다.
2. 협약은 양 기관의 합의된 서면 교환에 의해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3. 협약은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경찰청장
윤희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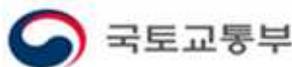
전세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이하 '각 기관')은 전세사기 근절과 임차인 보호를 통해 국민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선언한다.

1. 각 참여기관은 기관별 전문역량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세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2. 각 참여기관은 한계상황에 몰린 전세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한다.
3. 각 참여기관은 전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전세피해 사례,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캠페인, 교육 등 각종 대응정책에 적극 공조한다.

2022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경찰청장
윤희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권형택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진수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남철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
이종혁



서민주택금융재단 이사장
김수희



우리은행 행장
이원덕